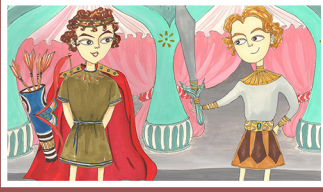


다윗과 요나단

-일곱 번째 이야기-



54Page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사울 왕이 사는 궁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용감한 다윗을 매우 좋아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내 친구 다윗, 넌 이제부터 나의 사랑하는 친구란다. 내가 주는 이 선물들을 받아주렴!”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가장 아끼는 왕자님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 주고,
또 자기의 군복이랑 칼, 활, 띠를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서로 해치지 말자!”
“그러자!”
요나단과 다윗은 영원히 제일 좋은 친구가 되자고 약속했어요.
친구가 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돌보아 주었어요.



55Page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길 가에 나온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인 적은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적은 수만이라네!”
사울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흥, 백성들이 지혜롭고 용감한 다윗을 나보다도 더 좋아한단 말씀이야. 이를 어쩐다?
혹시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라도 된다면 안돼!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나 한 사람 뿐이야!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만 해!’



56Page

사울 왕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다윗은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노래를 듣던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재빨리 피했어요.
‘사울 왕이 나에게 왜 그러는 걸까?’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왜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해서 화가 났어요.
점점 다윗이 미워졌어요.



57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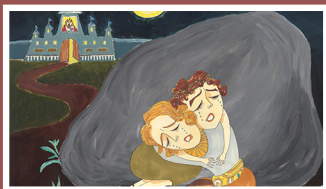
58Page



59Page



60Page



61Page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이 사실을 안 요나단은 다윗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버지, 왜 내 친구를 죽이려 하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정말 용감하고 충성스런 부하예요.”

사울 왕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네 말이 맞다.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 왕은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다시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밤중에 도망을 쳤어요.

다윗이 없어진 걸 사울 왕이 알았어요.

“다윗이 어디 갔느냐?”

“멀리 도망갔어요.”

사울 왕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싫었어요.

그래서 무섭게 화를 냈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부하들을 시켜 다윗을 뒤쫓았어요.

“에잇,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서 잡아오지 못할까? 그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들의 큰 바위 곁에 숨겨 주었어요.

“요나단, 어쩌서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걸까?”

“다윗, 넌 절대 죽지 않을거야. 만일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시면 네가 도망치도록 알려 줄게.”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몰래 약속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했죠.

“다윗, 아버지가 정말 널 죽일 것 같아. 빨리 도망 가.”

다윗과 요나단은 꼭 끌어 안고 울었어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제일 좋은 친구였어요.